

목사로서의 칼빈¹⁾

리처드 스타uffer
Richard Stauffer

〈佛 Sorbonne 大學 및 파리 신학대학교수〉

박 건 택 역*

칼빈은 27년동안 목사로 있었다. 정확히 그의 생애의 후반기에 해당되는 이 기간에, 그는 제네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목회사역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그의 첫 임지로 다시 돌아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목사들 가운데 그가 했던 활동만큼 풍부한 활동을 한 인물도 찾아보기 힘들며, 위대한 인물중 역사 속에서 그가 남긴 자취만큼이나 깊은 자취를 남긴 사람이 드물다. 혼란 영역을 뛰어넘는 이 사역을 한마디로 특징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에밀레오나르(Emile G. Léonard)의 평가를 다시 취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칼빈은 “제네바에서 새로운 인

* 이자 박 건택 목사는 현재 프랑스에서 유학 중.

1)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Paul MARTIN, *Un directeur spirituel au XVI^e siècle: Etudes sur la correspondance de Calvin Montauban 1886*; Emil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Vol. 2, Lausanne 1902, p. 67-84, 407-427, 666-668; Vol. 5, Lausanne 1917, p. 113-125; Eugène CHOISY, “L'éducation des consciences et la doctrine de Calvin” in *Calvin, éducateur des consciences*, Neuilly-sur-seine 1926, p.39-59; Wilhelm KOLFHAUS, *Die Seelsorge Johannes Calvins*, Neukirchen Kreis Moers 1941; Jean-Daniel BENOIT, *Calvin, directeur d'âmes*, Strasbourg 1947; Edmond GRIN, “Calvin Pasteur,” in *Revue de théologie et de Philosophie*, Lausanne 1949, p. 202-205; Erwin MULHAUPT, *Reformatoren als Erzieher*, Neutirchen Kreis Moers 1956, p. 51-71; Ernst PFISTERER, *Calvins Wirken in Genf*, Neukirchen Kreis Moers 2^{ed.}, 1957, p. 115-133; 그리고 Jean CAD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é*, Genève 1958, p. 107-134.

간행, 곧 「개혁파」를 주도해 내었고 훗날 근대문명이 될 것을 이곳에서 그려냈다.”²⁾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준비중에 있는 것³⁾은 계산하지 않고도 59권이나 되는⁴⁾ 현존의 신학작품이 보여주듯 이러한 풍부한 작품 앞에서, 사람들은 「개혁자」의 예외적 특별한 성격을 강조하며 그를 우리에게 가깝게 해주는 모습들을 잇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목적은 몇가지 예들을 통해서 칼빈이 자신의 사역 실천 속에서 증거했던 인간성을 보이려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예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몇몇 상황들을 통해서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들추어 낼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그의 사역에 도움을 받은 신자들에게 대한 그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1538년 4월 제네바에서 쫓겨난 개혁자들은 그들 위에 한 일파를 남겨 놓게 되었는데 이들은 개혁자들에게 호의를 갖고 있던 자들로서 기에르맹(Guillermis)이라는 이름하에⁵⁾ 모인 교회의 가장 열성 있는 일원들이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임목사들을 인정치 않게 하기란 쉬운 일이었다. 사실 그 신임목사들 중 많은 수가 최근 종교개혁에 가담한 수도승들로서 그들의 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칼빈은 이렇게 이해할 만한 가혹함에 양보하기는 커녕, 자신의 옛 양무리의 가슴 속에 자리잡고 있는 저항심을 부추기기를 삼가했다. 1538년 10월 1일, 몇개월만에 제네바의 신도들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그는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⁶⁾ 그 곳에서 그는 한 파당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을 위치시키기 보다 한 진실된

2) Histoire générale du protestantisme, Vol. 1: La Réformation, Paris 1961, p. 307.

3) Supplementa calviniana 라는 칭호로 Neukirchen Kreis Moers 사에서 출간하고 있는 미공개된 설교들을 말함. 제 1권(Predigten über das Buch Samuelis)은 Hanns Ruckert 교수에 의해 준비되어 1961년에 나왔다.

4)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éditées par Baum, Cunitz et Reuss, Brunswick et Berlin, 1863—1900.

5) Guillaumins 대신 사용된 이 별명은 파렐의 이름 Guillaume 에서 유래한다.

6) O.C., X, p. 251—255, Herminjard, V, p. 121—126, 그리고 Bonnet, I, p. 11—18 참고.

교회의 인물”⁷⁾로써 나타났다. 자신을 떠나게 만든 사건들에 대해 분명한 암시를 주지 않고, 그는 편지받는 이들로 하여금 최근의 변화가 그들의 미온상태를 고치고 열심을 재확인하며 신앙을 돈독히 하게 하려는 시련으로 알게 하려했다.

얼마후,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제네바의 자기 편들 가운데서 가장 뜨거웠던 인물중 하나⁸⁾가 신임목사의 손에서부터 성찬을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받게 되자 그는 서슴치 않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자신의 태도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견해와 같지 않았던 파렐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신도들 사이에는 분열에 대한 중오가 있음이 분명하고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역과 성례에 대한 존경으로서 이것들이 존속되고 있음을 보는 곳은 어디서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러저러한 인물들에 의해 인도될 때, 만일 신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표적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교회의 성찬에서 분리하지 않는 편이 보다 낫습니다. 혹자가 교회에서 불순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에 남아 있는 무지한 사람들을 갖지 않은 교회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구성하는 교리가 제 위치를 갖고 또 그 위치를 보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⁹⁾

칼빈의 화해적 태도는 신임 설교자들에 대한 기에르맹(Guillermis)의 반대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사실 신임 설교자들은 복음선포보다는 반격하는 일에 마음을 더욱 썼기 때문에 그들의 전임자들이 했던 일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 어쨌든 종교개혁을 위협스럽게 타협 시킨다는 조건하에 결말이 날 뻔 했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일 자리를 맡아 붙들려 있던 칼빈에 의해 용기를 얻은 파렐은 제네바

7) 이 말은 1538년 10월 1일자 편지의 문체에 대한 Anédée Roget의 평가, 곧 “이것은 교회의 인물의 언어이지 한 당파의 우두머리의 소리는 아니다”에서 착상된 것이다(Histoire du peuple de Genève depuis la Réforme jusqu'à l'Escalade, Vol. 1, Genève, 1871, p. 133).

8) 콜레쥬(Collège)의 학장 Antoine Sautier 를 말한다.

9) 1538년 10월 24일자 편지, O.C., X, p. 275, 그리고 Herminjard, V, p. 169.

의 신임사역자들과 평화를 체결했는데¹⁰⁾ 그들은 개혁자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목사들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이 화해는 가에르맹(Guillermis)편에서 즉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찬탈자들로 여겼다. 오직 연합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칼빈은 다시 한번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착해 있는 옛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그 때 그는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때들의 교회를 그토록 불행하게 흐트러뜨리고 또 거의 뒤집어 놓았던 그 사건들 이래, 우리 뒤를 이은 사역자들과 그때들 사이의 분쟁과 분규에 대해 듣는 일 외에 다른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착했을 당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 규율없는 행실이 비록 그때들을 충동질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회야 어쨌든 간에, 나는 교회에 모종의 분리가 있다는 사실을 크고 깊은 두려움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바와는 달리, 그때들의 목사들과 이웃 교회들 사이의 이 화해, 곧 파렐이 개인적으로 이루었고 또 내가 동의한 화해가 그때들의 영혼 배려가 위임된 그때들의 목사들에게 진지한 우정감정과 합법적인 관계연결로 그때들을 연합시킬 수 없게 된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한 이 악을 치료하려는 시도를 목적으로 그때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치료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 칼빈은 잠깐 건너 뛰어 몇 줄로 우리에게 대답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목사의 기능을 어느정도 수행하고 견뎌낼 수 있는 자들에 관해서, 그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행동하라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때들에게 해야 할 것 보다는 그때들이 다른 이들에게 해야 할 것에 우선 몰두하라는 것입니다.”¹¹⁾

화합의 사랑으로 그토록 영감된 이 편지를 보낸 지 일년이 조금

10) 1539년 3월 12일 Morges에서 열렸던 이 화해는 베른의 설교자들의 보호하에 이루어졌는데 “모르쥬협약(Concorde de Morges)”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종합 전기물인 *Guillaume Farel*, Neuchâtel et Paris 1930, p. 431을 참고.

11) 1539년 6월 25일자 편지, O.C., X, p. 351과 352, 그리고 Herminjard, V, p. 336, 337과 338.

넘어, 그들 목사들¹²⁾의 일에 불만족한 제네바당국은 위협할 정도로 위태로워진 상태를 만회하기에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본 칼빈을 다시 부르려는 교섭에 착수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행복했던 「개혁자」는 제네바로 되돌아갈 아무런 욕망도 없었다. 그는 “이 십자가를 지느니 백번 죽는 것”¹³⁾이 낫다고 터놓고 말했다. 첫 입지에서 수치스럽게 쫓겨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목회사역을 다시 하도록 요구하는 그 부름을 거만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칼빈은 복음의 유익과 관계된 문제에서 자신의 원한을 더욱 깊게 할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그를 부추겼던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네바의 시위원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1540년 10월 23일자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때들의 교회에 너무도 권고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는 교회의 급선무를 이행하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교회가 매우 애석한 상태에 처해 있어, 만일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흐트러질 위험까지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매우 난처한 상태에 있으나 그때들의 요구에 만족을 주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좋은 상태로 전환시키도록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활용할 생각입니다.”¹⁴⁾ 몇 주일이 지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썼다: “내가 그때들에게 확인하는 바는 그때들의 교회를 돕는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는 한, 나는 내가 이미 그때들이 불러 맡겼던 책임을 수락했을 때처럼, 다시 말해 내가 이미 그때들 가운데서 목사의 직무를 수행했을 때처럼, 나의 의무를 다 할 것입니다. 그때들의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나의 염려는 교회의 급선적인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하지

12) 1540년 여름동안 이들 중 둘, 곧 “Jean Moraud과 Antoine Marcourt가 자기들의 직무를 포기하고 휴가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도시를 떠났다” (Williston Walker, *Jean Calvin: l'homme et l'oeuvre*, Genève 1909, p. 279).

13) 1540년 3월 29일자 편지, O.C., XI, p. 30, 그리고 Herminjard, VI, p. 199.

14) O.C., XI, p. 95—96, Herminjard, VI, p. 333, 그리고 Bonnet, I, p. 30.

않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¹⁵⁾

그의 친구들, 특히 파렐의 독촉에 굴복한 후,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자기 개인의 기호를 희생한 후, 칼빈은 1541년 9월 13일 제네바로 돌아왔다. 며칠 뒤¹⁶⁾, 그는 강단에 올라섰다. 과거의 질주들을 상기시키고 흔히 “상황설교”(Sermon de circonstance)라고 불리는 것을 해설 얼마나 멋진 기회인가! 그러나「개혁자」는 여기서도 또다시 혹자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 무명의 편지 수취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설교하기 위해 민중 앞으로 갔습니다. 각자는 큰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분명기 다렸던 사건들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침묵 속에 흘러 보내고, 나는 나의 사역의 원리들을 간단하게 발표했으며, 그 다음, 나를 부추겼던 신앙과 공명정대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낸 다음 나는 강해할 본문을 택했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추방 전에) 멈추었던 마르그 곳이었습니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 내가 가르치는 임무를 그만 두었다기 보다는 잠시 중단했었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습니다.”¹⁷⁾

이 말에서 보여주듯 칼빈은 이런 관대함을 가졌고 또한 연합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인내를 결비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성찬문제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다른 누구보다 더 고통스럽게 이 분리를 느낀 칼빈은, 파렐의 지지를 얻어, 쪽빙글리파와 화합을 추구할 목적으로 1540년부터¹⁸⁾ 쥘리히의 불링거

15) 1540년 11월 12일자 편지, O.C., XI, p. 105, Herminjard, VI, p. 354. 그리고 Bonnet I, p. 34—1541년 2월 19일자 편지 참고, O.C., XI, p. 158—159, Herminjard, VII, p. 28—29 그리고 Bonnet, I, p. 36—38.

16) 아마도 9월 18일 주일, Herminjard VII, p. 412 주20 참고.

17) 384번째 편지, O.C., XI, p. 365—366=1090번째 편지, Herminjard, VII, p. 412. 아마도 1542년 1월 말경으로 여겨지는 이 편지는, Herminjard 에 따르면, 파렐의 히브리어 교수였던 Sebastien Münster 에게 보내졌다(cf. op. cit., p. 413 주26).

18) André Bouvier. *Henri Bullinger, le successeur de Zwingli, d'après sa correspondance avec les réformés et les humanistes de langue française*, Neuchâtel et Paris. 1940, p. 125. 성찬에 대한 일치문제를 결말 짓기 위해 쥘리히 사람들과 더불어 칼빈이 취한 거동의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이 책은 참고될 것이다(p. 125—144).

(Henry Bullinger)와 협상을 시작했다. 힘들게 토론하고 상호양보한 지 9년 만에 일치의 영역이 발견되었다. 1549년 리마(Limmat)의 변경에서 기진맥진한 칼빈과 쥘빙글리의 후계자들 사이에 협약(Consensus tigurinus)이 체결되었는데,¹⁹⁾ 이것은 이내 베른과 바젤의 교회들에 의해 수락되어 스위스 개신교의 교리적 통일을 이룬 것이다.

이 일에서 칼빈을 부추긴 것은 단순히 신학적 이유가 아니라 목회적 동기였다. 이 점을 확인하려면, 그들 협약의 본문에 나오는 서론부분 대신에 쥘리히의 동료들에게 칼빈이 보낸 편지를 들추기만 하면 된다: “내가 그대들에게 이미 수차례 경고한 대로 우리, 곧 그대들과 내가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듯하다고 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기본을 해쳤습니다…사실 사적으로 함께 한담을 하면서 우리 사이에 있는 일치를 보이고 또 그 일치를 확고히 하는 어떤 좋은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이 추문을 제거하기 위해 그 보다는 더 적절한 처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아는대로, 나는 최근 그대들의 도시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서(Consensus) 항목들의 발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실로 우리가 서로 매우 잘 합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리질 것 없기를 바랐던 이들이 미결상태와 의혹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내게 고통을 줍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사이에 결정하고 체결한 것에 대한 공적 증거를 계속해 가면서,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²⁰⁾

이처럼 스위스 교회들의 결합에 공헌을 한 후, 칼빈은 하나로 뭉쳐진 개신교라는 대의명분에 끌어들이는 소망에서 이번에는 루터의 제자들에게로 방향을 바꾸었다.²¹⁾ 그의 노력은 그가 예상했던 성공

19) O.C., VII, p. 733—748, 프랑스어 역 in *Opuscules*, p. 1138—1143, 그리고 in *Calvin, homme d'Eglise*, Genève 1936, p. 133—142.

20) *Opuscules*, p. 1137—1138 그리고 *Calvin, homme d'Eglise*, p. 132—133

21) François Wendel 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는 칼빈과 루터의 루터파와의 관계를 잘 규정짓는다: “그가 루터파를 항상 이해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가 그들에게 이해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도의 순수성은 별개의 것으로 남는다(op. cit., p. 70).

을 거두지 못했다. 쥘리히의 협약을 비난했던 베스트팔(Joachim Westphal)이라는 함부르크의 극단 루터주의 신학자와의 무모한 논쟁에 휩쓸려, 그는 독일에서 자신의 견해와 멀지 않았던 자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여기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사건을 언급해야 하겠다. 이 사건은 어떤 루터파들이 제네바의 개혁자에 대해 품었던 의심과, 그리고 그를 고무시켰던 폭넓은 정신을 동시에 보여준다. 1556년 베스트팔과의 논쟁이 한창일 무렵, 칼빈은 프랑스 교회를 분리시키는 한 싸움을 조정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Francfort-sur-le-Main)로 갔다. 시의회²²⁾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목사들에게 그와 이야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그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거절했다.²³⁾ 그러나 우연한 조우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칼빈은 그 루터파 동료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그들을 한 토론(Colloque)에 초대하면서 자신은 연합을 모색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의도도 없음을 선언했고 또 덧붙이기를 자신은 그들의 기호에 반대되는 토론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해야 할 말을 모두 발언하고 나자, 그가 얼마나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그들 중 하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인사를 했다. 하여튼 그가 그들에게 한 것은 말뿐이 아니었다.²⁴⁾ 제네바의 개혁자는 그의 열린 대화와 우아한 태도를 통해서 그의 대화자들을 설득시켰음에

22) 칼빈은, 1555년, 이 시의회에게 신앙 때문에 피신한 자를 영접해 준 이유로 그의 "공관복음 주석"(Commentaire sur l'Harmonie évangélique)을 헌정했다. 그 헌사에서 「개혁자」는 이렇게 단언했다: "그대들은 그대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예배를 보존하고, 그대들의 신학들이 그리스도의 양우려 앞에 견실하게 있도록 조심스레 명명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산으로 말미암아 외부로 쫓겨나 산재해 있어 유골조각 같이 초라하게 찢긴 일원들을 맞아들이고 하나로 모으셨읍니다"(Comm. N.T., I, p. 11)

23) 이 거절에 대해 루터파 신학자 Erwin Mulhaupt는 이렇게 쓴다: "Hat man nicht deutlich den Eindruck: man weicht Calvin nur deshalb aus, weil man Sorge hat, das menschlich angenehme und gewinnende Wesen dieses Mannes könnte einen irremachen im eigenen Standpunkt, den man doch auf keinen Fall aufgeben will?" (op. cit., p. 57)

24) 1556년 10월 26일자로 Wolfgang Musculus에게 쓴 칼빈의 편지 참고 O.C., XVI, p. 319-320.

틀림없다!²⁵⁾

이와같은 열매없는 협회가 있는 지 수년 후, 프랑스에서 종교전쟁의 기운이 무르익어갈 무렵, 칼빈은 폭력에 대한 공포와 열광주의에 대한 혐오감—이것은 그의 목회태도의 다른 일면일—을 표명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앙브로아즈(Ambroise)의 음모(1560년)를 정죄했는데 이 음모는 프랑스와 2세를 제거하고 귀즈(Guise)의 가톨릭 영향에서 그를 떼어 놓을 목적으로 프로테스탄트파가 꾸민 것이다.²⁶⁾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 고국의 매일 보다 커져가는 개혁교회들에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톨릭의 성전을 빼앗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고,²⁷⁾ 또한 힘에는 힘으로 갈으려는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불지방에서, 목사의

25) 칼빈의 "에큐메니칼"한 노력에 대해서, Willem Nigenhuis의 *Calvinus oecumenicus: Calvin en de eenheid der kerk in het licht van zijn briefwisseling*, S-Gravenhage 1958; John T. McNeill "Calvin as an Ecumenical Churchman," in *Church history*, 1963, p. 379-391, 그리고 *Unitive Protestantism*, Richmond (Virginia), 2^o éd., 1964, p. 128-220 참고.

26) Bonnet에 따르면 1561년 4월 16일자 Coligny 장군에게로 가는 편지. 참고, O.C., XVIII, p. 425-431과 Bonnet, II, p. 382-391. 칼빈은 이곳에서 이 음모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항상 솔직하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의 우매함이 잘도 성공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품위가 떨어진 인물로, 교회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자유를 반대하는 그런 류의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읍니다"(O.C., XVIII, p. 429-430과 Bonnet, II, p. 388).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Henri Naef는 다소간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무죄를 인정한다(*La conjuration d'Amboise*, Genève 1921, p. 159-163); 비록, Naef가 결정적인 증거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처럼, 「개혁자」가 그 "마음 깊은 곳에...예성박의 성공에 대한 소망"(Ibid, p. 163)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는 Amboise의 음모를 결코 격려하거나 좋아하지 않았다.

27) 예를 들어 파리 교회에 쓴 편지(1561년 2월 26일)와 몽펠리에(Montpellier) 교회에 쓴 편지(1561년 8월) 참고, O.C., XVIII, p. 376-378와 p. 661-662, 그리고 Bonnet, II, p. 378-382와 p. 418-420. 첫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성전을 점령하는 것은, 그대들이 아는데로, 허락되지 않은 한,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열기가 어떤 가혹한 뇌우에 의해 식게될까 하는 것입니다"(O.C., XVIII, p. 378과 Bonnet, II, p. 381).

28) 다른 어떤 편지들 가운데 1560년 4월자로 Valence와 Montélimar 교

협력 내지는 선동으로 몇몇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이 사고를 저질렀을 때, 그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²⁹⁾

「개혁자」는, 타르타스(Tartas)목사의 지도하에 맹렬한 성상파괴자들로 말미암아 탈취된 쏘브(Sauve)의 교회³⁰⁾에, 당시 이렇게 써 보냈다: “만일 각자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 주신 규칙, 곧 절제와 모든 겸손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있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역시 이미 일어난 추문을 고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여러분께 상의하고 권면하려는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쏘브에서 무모한 짓을 한 자들, 곧 우상들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헐어 쓰린 자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절제케 하고 그들에게 재갈을 붙여야 할 사람에게 그런 경솔함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아연했습니다.” 선한 양심에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주장한 쏘브의 목사의 반대에 대답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만일 그가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원한다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집에서 각 개인에게와, 또 공적으로 그가 권위를 부여한 자에게를 제외하고는 우상타파를 결코 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³¹⁾

마찬가지로 힘있는 어조로, 칼빈은 1562년 리옹(Lyon)에서 행해진 과격행위를 비난했다. 바씨(Vassy)의 대학살의 소식에 격분한 리옹

회에 쓴 편지, 그리고 1561년 5월 1일자의 Aix 교회에 쓴 편지 참고(O. C., XVIII, p. 63-64, 64-66와 436-437, 그리고 Bonnet II, p. 330-332, 332-336와 392-394). Valence로 가는 편지에서 칼빈은 이렇게 쓴다: “그대들은 원수들의 격노를 육체의 팔의 도움으로 저항하기 위해 무장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는 복음 진리와, 우리의 신체나 영혼보다 더 높히 평가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열정을 보전하기 위해 무장해야 합니다”(O. C., XVIII, p. 63, 그리고 Bonnet, II, p. 331).

29) 주 “Calvin et les briseurs d'images”(칼빈과 성상파괴자들) 참고. in BSHPF, 1865, p. 127-131.

30) 현재 Gard 지방

31)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1561년 6월 혹은 7월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편지, O. C., XVIII, p. 580-581, 그리고 Bonnet, II, p. 416-417.

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도시를 점령하여 성·요한 성당을 노략질했다. 「개혁자」는 그들의 목회자들에게 보낸 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행동으로 야기된 추문을 적발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가 큰 수치와 마음의 쓰라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일에 대해 부드럽게 타이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부탁하고 또 권면자의 자격으로 권면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이 치료가 늦어지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최소한 지나간 잘못을 보상하되 특히 그 도둑질과 약탈은 빨리 보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욕 속에서 그들과 한 쌍이 되어 복음의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인물들(질서를 어지럽힌 오류자들)에게서 떠나 분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에서 본대로 칼빈은—어떤 전설과도 반대로—결코 미치광이나 정열의 화부(火夫)의 모습을 찾지 않았다.

만일 칼빈이, 그의 사역의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때로 잘못 알려진 그의 인간성의 특성을 보여 주었다면, 하물며 일상생활에서의 그의 행동은 어땠겠는가? 자기 관할 교구인들, 혹은 수많은 서실 왕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행동은 어땠던가? 이처럼 영혼에 대한 그의 염려에서 혹자는 그의 성공의 비결을 볼 수 있었다.³²⁾ 장·다니엘 브느와(Jean-Daniel Benoit)는 다음과같이 쓰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제네바의 개혁자처럼 말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어쩌면 그를 제네바의 목사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칼빈은 영혼 속에 있는 목사였고 그의 개혁작업은 많은 집에서 그의 목회활동의 결과 및 연장에 불과했기 때문이다.”³⁴⁾

칼빈의 서간들은 그의 신도들—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과 더불어

32) 1562년 5월 13일자 편지, O. C., XIX, p. 410 그리고 Bonnet, II, p. 467. 또한 동일 날짜에 Adrets의 남작에게 보낸 편지 참고, O. C., XIX, p. 412-413, 그리고 Bonnet, II, p. 468-470. 여기서 칼빈은 “성찬잔에 구멍을 내고 성물함과 기타 성전기구들을 절단하려 한” 난폭한 군인들과, 그러한 약탈행위에 빠져, 치욕스럽게도 “자기에게 그토록 성하고 거룩한 대의명분”인양 말하는 목사들에게 항의하고 있다(O. C., XIX, p. 412, 그리고 Bonnet, II, p. 469-470).

33) Ernst Pfisterer, op. cit., p. 19와 Wilhelm Kolfhaus, op. cit., p. 9, 10 참고.

34) Op. cit., p. 18.

어 그의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게 한다. 이 모습은 무한히 덜 냉혹하며, 특별히 건설의 모습보다 매력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가지 모습만 고려해 볼 것이다.³⁵⁾ 첫째는 전적 헌신의 모습으로 몇가지 예가 이것을 충분히 잘 보여줄 것이다. 「개혁자」가 바젤에 있던 1538년에, 그는 파렐의 조카가 방금 페스트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만을 생각한 채 그는 환자의 머리맡으로 달려가 복음의 위로로 아낌없이 주고, 자비를 들여 그를 간호케 했으며, 죽음이 그를 데려가자 장례비를 부담했다.³⁵⁻²⁾ 제네바로 돌아와서 몇년이 지난 후, 그는 한 가난한 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그는 병원 원장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이 가련한 일이기에, 그 사람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를 도와줄 방법이 있는 지 없는 지를 찾아보는 일은 그때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그때에게 추천하는데, 그가 도시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할 수록 더욱 대답하게 그리합니다. 사실, 만약 그가 외국인이었더라면, 나는 감히 그에게 어떻게든 자리를 제공하려 했을 것입니다.”³⁶⁾ 기욤 드 트리아(Guillaume de Trie)가 한창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죽게 되자, 칼빈은 고아가 된 그의 자녀들의 보호 책임을 인수할 것을 허락했다. 그를 둘러 쌓고 있는 무거운 짐

35) 완전한 모습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서 인용한 Wilhelm Kolffhaus와 Jean-Daniel Benoit의 작품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들은 매우 훌륭한 방법으로 양심의 인도자 칼빈의 특성을 들려주어 내고있다.

35-②) 1538년 8월 20일자 파렐에게 보낸 편지 참고, O.C., XI, p. 235-237. 그리고 Herminjard, V, p. 86-89. —여기서, 몇몇 역사들과는 반대로, 칼빈이 1543년의 페스트 기간 동안에 자기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되었음을 강조해야 한다. 제네바 당국이 당시 그를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능한 원목 중 하나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그 때 그가 교회와 도시에서 다른 사람과 대치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네바 당국이 그를 전염병에 내어 놓기를 위험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페스트 환자들의 원목으로 지명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이 위험한 직무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1542년 10월말에 Viret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O.C., XI, p. 457-460, 그리고 Herminjard, VIII, p. 163-167 참고). 이 주제에 대해서 Emil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Vol. 3, Lausanne 1905, p. 147-150와 Ernst Pfisterer, op. cit., p. 119-125를 참고하라.

36) 1542 또는 1543년 편지, O.C., XI, p. 482와 Herminjard, VIII, p. 236-237.

들을 놓아 두고서, 그는 배자에게 이렇게 단언한다: “나는 이 특별한 친구를 기억하면서 그의 자녀를 내 친 자녀처럼 사랑해야만 하오……그가 내게 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내게 죄가 된다오.”³⁷⁾

「개혁자」의 헌신에 일련의 겸손한 봉사를 관련시켜야 할 것인데, 이것은 때로 진질머리나는 일이기도 하나 한 목사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는 한 노부인이 스트라스부르그로 피신하여 잘 적응하지 못하자 비레(Viret)에게 간청하여 제네바에 그녀를 위한 숙소를 찾게 하였다.³⁸⁾ 그는 외콜람파드(Oecolampade)의 제승자인 미코니우스(Myconius)로 하여금 자기 교구인 중 한 사람의 아들이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한 가정을 바젤에서 찾아 보도록 요청했다.³⁹⁾ 그는 동일한 요구를 블랑거에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네바 당국이 모든 비용을 대고 쥘리히로 보내려했던 4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러했다.⁴⁰⁾ 그는 네샤텔(Neuchâtel)의 한 동료의 조카에게 제네바의 한 세탁소에 견습자리 하나를 손수 마련해 주었다.⁴¹⁾ 그는 르네 드 프랑스(Renée de France)의 주변에 개입해서 페라라(Ferrara)대학의 옛 헬라어 교수인 프랑스와 포르토(François Porto)의 딸에게 지참금을 마련케 하였다.⁴²⁾ 피난은 한 귀족이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그의 부친에게 편지를 띄우게 되자 칼빈은 그를 위하여 초안을 잡아 주었다.⁴³⁾ 그는 결혼을 갈망하는 한 젊은이를 위해

37) 1562년 2월 11일자 편지, O.C., XIX, p. 285.

38) 1541년 8월 13일자 편지 참고, O.C., XI, p. 261-263와 Herminjard, VII, p. 216-219.

39) 1546년 5월 1일자 편지 참고, O.C., XII, p. 343-344.

40) 1560년 9월 6일자 편지 참고, O.C., XVIII, p. 176-177—또한 1560년 10월 1일자 편지 마지막 부분 참고, O.C., XVIII, p. 208, 여기서 칼빈은 Michel Planchon 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을 위해서 숙소를 요청하는데 그의 부친은 칼빈의 친구들의 일원이자.

41) 1555년 10월 24일자 파렐에게 쓴 편지 참고, O.C., XV, p. 841-842.

42) 1563년 5월 10일자 편지 참고, O.C., XX, p. 15-18와 Bonnet, II, p. 513-516.

43) O.C., XIV, p. 542-544와 Bonnet, I, p. 387-390 참고. 이 편지에서 신앙때문에 자기 부친에게 불복할 수 밖에 없었던 그 귀족에게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사 무엇이 신하고 무엇이 나쁜지를 명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결되어야 합니다”(O.C., XIV, p. 543와 Bonnet, I, p. 389). Kampschulte는 개혁자가 자신의 무오성을 주장한다고 비난해서는 안되었다(Johann Calvin:

아름다운 몸매와 원만한 성격을 갖춘 한 여인을 힘써 찾았다.⁴⁴⁾ 이러한 예들은 목회사역에 있어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이 몹시 힘들고 그 책임이 막중했던 한 인물의 생애에서 이런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현신만이 칼빈의 목사직에 대해 잘못 알려진 유일한 특성은 아니다. 그의 용모와 뉘 수 없는 관계에서 들춰져야 할 두번째 모습은, 칼빈이 전설에 의해 그려졌듯이 냉정한 타산적 인물도 아니고 냉혈한 지성인도 아니며 고집불통의 선동자도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두번째 모습이 드러내 줄 놀라운 것은 「개혁자」가 동정심의 재능을 부여받았고, 이 동정심은 진짜 연민으로 쉽게 번졌다는 사실이다. 그는 비례의 아이가 산부의 새로운 임신으로 젖을 떼어야 했을 때 비례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그대의 여자아이와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하지만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낳게 되려는 그녀는 자기 엄마가 자신에게 품게 했던 편견을 잊어 버릴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이미 젖떼면서 오는 비통함에서 벗어나 있기를 바랍니다.”⁴⁵⁾ 그는 남편에게 배반당한 그라몽(Grammont) 부인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그대의 남편이 그대에게 계속 불성실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대가 참고 있는 그 고뇌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대 남편의 마음을 회개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대 편에서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선한 길로 끌어드릴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가 여러번 배신당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또 다시 해야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처방입니다.”⁴⁶⁾ 그는 어린아이를 잃은, 그것도 세례 받기도 전에 잃은 한 아버지를 위로하고 안

seine kirche und sein staat in Genf, vol. I, Leipzig 1869, p.276 참고)
이 독일 역사가는 이 편지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가 칼빈이 아니라 Aubeterre의 젊은 저작자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Emile Doumergue, *Calomnies antiprotestantes*, vol. I, Paris et Lausanne 1912, p.111-114 참고.

44) 1558년 7월 1일자 파렐에게 보낸 편지, O.C., XVII, p.227-228.

45) 1549년 7월 6일자 편지, O.C., XIII, p.319.

46) 1559년 10월 28일자 편지, O.C., XVII, p.661 그리고 Bonnet, II, p.292-293.

심시킨다. 그에게 “나는 네 자손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이해시켰다.⁴⁷⁾ 그는 로랑 드 노르망디(Laurent de Normandie) 부인의 임종에 참석하고, 이 피난해 온 젊은 부인의 죽음을 아직 프랑스에 남아 있는 그녀의 부친에게 통보할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슬픈 소식을 전달해 주어야 할 까니(Cany)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이웃의 연민과 슬픔을 나누어 갖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비탄의 일부를 걸머 지어 그 만큼 그들을 경감케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⁴⁸⁾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칼빈의 편지는 리슈부르(Richebourg)씨에게 쓴 것으로, 그의 아들은 스트라스부르의 칼빈의 집에 있었는데, 칼빈이 라티스본(Ratisbonne) 회담에 참석하려 간 사이 페스트에 걸려 죽었다. 눈물에 젖어 있는 그 부친에게 「개혁자」는 이렇게 말한다: “클로드(Claude Féray) 선생과 그대의 아들 루이(Louis)가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너무도 정신을 잃고 이 절zul을 몰랐기 때문에 며칠을 우는 일 외에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간 위로를 받고, 그가 역경의 때에 우리에게 주는 도움으로 안위를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른 한편, 그대의 아들처럼 알길이 창창한 소년이 젊음을 버기도 전에 죽었다는 슬픔과 고통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내가 내 아들처럼 사랑했고, 또한 그도 나를 제 2의 아버지나 되는 것처럼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 후, 칼빈은 덧붙여 위로의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문제에 있어 변함없이 굳세게 보일까하여, 이제 당신에게 위로하려는 권면과 교훈이 당신에게 큰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다른 이의 고통에 나의 곳곳함을 결코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선하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어떤 국면에서 건지

47) 1554년 9월 6일자 편지, O.C., XV, p.228와 Bonnet, I, p.438.

48) 1549년 4월 29일자 편지, O.C., XIII, p.247와 Bonnet, I, p.300.

시고, 다시 말해 당신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고통과 번민에서 위로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찝막한 한 통의 편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그러한 고뇌 속에서 내게 매우 유익을 주었다고 보는 내가 취한 처방을 당신에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상황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슬픔을 고려에 넣어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쓰고있는 인물이 부계있고 사려가 깊고 매우 굳센 항구성을 재능으로 부여받은 분임을 기억합니다.⁴⁹⁾

이 편지가 이처럼 감동적이긴 하나, 칼빈이 신앙때문에 박해받았던 프랑스의 신도들과 교회들에 대해 취한 역할을 잊게 할 수 없다. 그는 끊임없이 그들을 조언하고 격려했으며, 또한 그들에게 목사들을 파송했고 연민을 보였는데, 우리는 그가 파리 교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중 다음 몇마디 말에서 흔적을 찾게 된다: “단일 그대들이 다가오는 위협에 당혹하고 고민한다면, 우리가 역시 그대들이 우리 편임을 느낀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하는 바로는 그대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형제적 관계를 맺고 심지어 우리의 구원 소송을 위해 싸우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망각할 만큼 그토록 잔인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그대들을 위로할 방법이 없고, 연민으로 신음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고통은 너무도 우리를 압박합니다.”⁵⁰⁾

「개혁자」가 그의 인간성이 어느 정도였나를 보여 주는 것은 감옥에 갇힌 자와 순교자들을 향한 그의 태도에서이다.⁵¹⁾ 자신의 연민을 감추지 않은 채, 또 할 수 있을 때마다 그들을 구제할 노력을 아끼지 않고서, 그는 종교재판소 판사의 질문에 답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고통스런 구류 기간동안 그들에게 힘을 북돋으며, 무서운 죽음의 위협 앞에 하늘의 지복으로 그들을 안위시킬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그는 리샤르 르 페브르(Richard Le Fevre)와 편지를 주

고 받았는데⁵²⁾ 리샤르는 화형대에 올라가기 직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간다고 그에게 알렸다. 그는 또한 “주님께 기도하면서 즐겁게” 죽어간 마티유 디모네(Matthieu Dimonet)와,⁵³⁾ 화형불꽃 앞에서의 영웅적인 곳곳함이 우리들의 감동을 야기시킨 랑페니(Rentigny)부인과 롱쥬모(Longemeau) 부인파도 서신왕래를 했는데 마지막 두 부인은 파리의 썩·자끄 거리 사건이후 모두 감옥에 갇혔었다. 감상과 경건한 허위의 이중적 압초를 피하면서 그는 그들을 단순히 감동시키지도 않았고 또 그들의 운명의 장중함을 결코 숨기지도 않았다. 그는 씩씩하게 그들의 고통에 공감했다. 그는 어느날, 이런 저런 형태로, 그가 한 미지의 수감자에게 썼던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했다: “비록 그대가 고통받게 된 그대의 명분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한 것이어서, 우리 안에 당신의 고통이 있는 한 우리 역시 참여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대에 대해 갖고있는 연민과 탄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일 외에 우리가 해야 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⁵⁴⁾

이러한 어조는 「개혁자」가 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감자 집단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다시 발견된다. 그 문어체로잔에서 비레와 베자에게 신학수업을 받고 선교적 열심에 이끌리어 그들 고국으로

52) 1551년 1월 19일자 편지, O.C., XIV, p.19-24와 Bonnet, I, p.316-325.

53) 1553년 1월 10일자 편지 참고, O.C., XIV, p.467-469와 Bonnet, I, p.367-371.

54) 1553년 7월 7일과 동년 8월 22일자 편지 참고, O.C., XIV, p.561-564와 593-596 그리고 Bonnet, I, p.395-399와 399-404. Jean Crespin의 *Histoire des martyrs* (순교사)에 따르면, 이 중 첫번째 편지가 Matthieu Dimonet에게 보내졌다.

55) 1557년 12월 8일자 편지 참고, O.C., XVI, p.726-729와 Bonnet, II, p.159-163. 1558년 4월 10일자 두번째 편지(O.C., XVII, p.131-132와 Bonnet, II, p.189-192)에서, 칼빈은 랑페니부인이 자기 남편의 소송에 감옥에서 종교를 버릴 기미를 보이자 그녀가 정신을 다시 찾도록 해주고 있다.

56) 1557년 12월 14일자 편지 참고, O.C., XVI, p.734-735, 와 Bonnet, II, p.169-171.

57) 1559년 11월 13일자 편지, O.C., XVII, p.669, 와 Bonnet, II, p.307.

49) 아마도 1541년 4월 초순경 편지, O.C., XI, p.188와 190, 그리고 Herminjard, VII, p.66와 67-68. Jules Bonnet는 이 편지가 있는 줄 몰랐다.

50) 1559년 6월 20일자 편지, O.C., XVII, p.575, 와 Bonnet, II, p.282.

51) Kolfhaus와 Benoit는 신앙의 증언에 따라 칼빈의 사역의 감동적인 일면을 인정하는데 서로 일치한다.

들어 결국 체포되어 사형언도를 받은 5명의 리옹의 젊은 프랑스 학생("écouliers")과의 편지보다 더 비장한 것은 없다.⁵⁸⁾ 그 무엇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출발하여 사보아(Savoie)에서 체포되어 사형 집행인에게 넘겨진 5명의 프랑스인 목사로 샹베리(Chambéry)에 수감된 자들에게 보낸 그의 메세지 보다 더 격정적인 것은 없다.⁵⁹⁾ 그 무엇도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 모였다는 죄목으로 그들 중 여럿이 화형대에 올랐던 파리의 남⁶⁰⁾ 여⁶¹⁾ 포로인들에게 쓴 편지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없다. 이 편지 왕래가 수취인들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왔는 지 이해하려면 서간문을 읽어야 한다.⁶²⁾ 이 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하감옥 밑바닥까지 활동하신다는 확신으로 넘쳐 있고 영생의 소망에 고무되어 있어서, 역경이 패자로 만들어 버릴 수 밖에 없었던 자들을 승자로 화하게 하였다.⁶³⁾

목회 사역 실천 속의 칼빈은 바로 이러했다. 그는 그의 탁월한

58) 1552년 6월 10일자 편지(O.C., XIV, p. 331-334, 와 Bonnet, I, p. 340-345), 날짜없는 두통의 편지(O.C., XIV, p. 423-425와 469-471), 1553년 3월 7일자 편지(O.C., XIV, p. 491-492와 Bonnet, I, p. 371-374), 그리고 날짜없는 편지(O.C., XIV, p. 544-547와 Bonnet, I, p. 382-386) 참고.

59) Bonnet 에 따르면 1555년 9월 5일자 편지(O.C., XV, p. 707-709와 Bonnet, II, p. 63-66) 그리고 동년 10월 8일자 편지(O.C., XV, p. 809와 Bonnet, II, p. 77-79) - 또한 Jules Bonnet, *Récits du XVI^e Siècle*, Vol. I, Paris, 1885, p. 39-76 참고.

60) 날짜없는 편지(어쩌면 1557년 9월 인듯) 참고, O.C., XVI, p. 632-634와 Bonnet, II, p. 145-149.

61) 1559년 2월 15일(Bonnet 가 지적한대로 18일이 아님)자 편지 참고, O.C., XVII, p. 436-439와 Bonnet, II, p. 253-257.

62) 우리는 단 하나의 예만을 들겠다. 샹베리의 죄수들은 죽기전에 칼빈에게 한 메세지를 전한다. 그 메세지는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우리 주님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께, 우리는 크게 우리를 위로해준 당신의 9월 5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편지가 우리를 향한 당신과 모든 형제들의 열렬한 사랑을 증명했기에, 당신이 육체를 따라 우리의 고통을 그토록 슬퍼한 만큼, 이제 우리는 자와 함께 울며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면서, 영을 따라 우리의 복을 즐거워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정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O.C., XV, p. 805-806).

63) Jean Crespin 의 *Histoire des martyrs* (Daniel Benoit 와 Matthieu Leliève 판, 3vol. Toulouse 1885-1889 참고)는 매장마다 종교개혁의 최초의 증인들이 죽음 앞에서 보여준 위대함을 드러낸다.

성품으로서 그를 가장 잘 알았던 당대 인물들의 성품들을 놀라게 한 그런 목사였다. 어려해 동안 제네바에서 그의 동료로 있었던 니콜라스 데 갈라르(Nicolas des Gallars)는 칼빈의 목회 활동을 다음의 말로 요약했다: "얼마나 많은 일과, 얼마나 많은 철야와 얼마나 많은 열력을 그는 감당했는가, 얼마나 날카롭게, 얼마나 민감하게 그는 위험을 예견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그는 이 위험들을 피했는가, 얼마나 신실하고 지성적으로 모든 이에게 관심을 가졌는가, 어떤 친절과 감사로 자기에게 말 걸어오는 자들을 영접했는가,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솔직히 그는 가장 중대한 질문을 자기에게 해 오는 자들에게 대답을 했는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내 놓는 난관과 문제들을 사적이건 공적이건 얼마나 현명하게 해결하였는가, 얼마나 부드럽게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낙담하며 용기를 잃은 자를 부추겼는가, 어떤 열심으로 그는 교만한 자들과 고집불통들을 쓰러 뜨렸는가, 그가 불행을 찾아 낸 것은 얼마나 큰 영혼의 위대함인가, 그가 번영 속에서 어떤 절제로 행동했는가, 얼마나 능란하게 또 도약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한 증의 모든 의무에 전념했는가, 나는 이 모든 것을 분명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⁶⁴⁾

64) 칼빈의 "이사야 주석"의 라틴어 서문으로 1570년 편집자 Jean Crespin 에게 보내어진 것, O.C., XXXVI, p. 15-16.